

문학은 감이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수능 문학은 작품을 이해하는 감,
애매한 선택지 중 정답을 골라내는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요.

하지만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동안 모두가 문학에서 감을 강조했던 이유는
아무도 문학 공부 방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문학은 주어진 작품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찾아
확실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철저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능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문학의 모든 지문과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문학 갈래별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독해 공식을 만들고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특강을 수록했습니다.

이제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누구나 수능 문학을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이 아닌 논리적이고 명쾌한 '독해 공식'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국어 1등급을 경험하세요.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9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2		월	일	월	일
2	13~25		월	일	월	일
3	26~40		월	일	월	일
4	41~59(+어휘)		월	일	월	일
5	B 01~07		월	일	월	일
6	08~16		월	일	월	일
7	17~29		월	일	월	일
8	30~38(+어휘)		월	일	월	일
9	C 01~13		월	일	월	일
10	14~33		월	일	월	일
11	34~49		월	일	월	일
12	50~66		월	일	월	일
13	67~83		월	일	월	일
14	84~101(+어휘)		월	일	월	일
15	D 01~10		월	일	월	일
16	11~29		월	일	월	일
17	30~48		월	일	월	일
18	49~66		월	일	월	일
19	67~83		월	일	월	일
20	84~99(+어휘)		월	일	월	일
21	E 01~11		월	일	월	일
22	12~23		월	일	월	일
23	24~39		월	일	월	일
24	40~57		월	일	월	일
25	58~75		월	일	월	일
26	76~90		월	일	월	일
27	91~98(+어휘)		월	일	월	일
28	F 01~08		월	일	월	일
29	09~19(+어휘)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김효진 경기 현화고
안다성 서울 한영외고

이세영 경기 수일고
이혜정 서울 중대부고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고

[감수진]

강경희 고양 진정성국어학원	박유빈 세종 너희기꽃이다 입시학원	임지혜 거제 파스칼에듀학원
강수진 목포 강쌤국어	박유진 화성 파란국어	장수진 청주 이레 국어교습소
강연구 춘천 페르마 학원	박정선 서울 가온누리 국어학원	장연희 대구 규장각 국어
강지수 부산 수수국어학원	박지현 서울 김중길국어논술학원	전국주 용인 고림중학교
곽동훈 서울 곽동훈국어학당	박지혜 천안 천안중앙고등학교	전현주 진주 경상대사대부설고등학교
곽은애 서울 (주)압구정명문학원	박현규 서울 영훈고등학교	전현표 부산 제일학원
권은영 울산 시나브로국어논술	배성현 인천 국어논술자신감	정민경 아산 가온국어 교습소
금정원 대구 델타학원	배유현 창원 청솔학원	정서은 부산 정서은 국어논술
기경민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배탐스 안양 삼성학원	정승호 성남 두각학원
김도연 서울 사과나무학원	송윤정 안양 평촌 대시나루국어학원	정지연 서울 강동국어교습소
김서령 광주 서령국어	양은혜 고양 이안의학원	조우현 서울 조지형국어학원
김세희 순천 순천금당고등학교	양지은 서울 흐름과파도 글쓰는서재국어	조진희 성남 미래탐구분당고등관
김수련 광주 외와학습코칭센터 진월점	오유진 부산 유진아 국어 학원	조호숙 광주 첨단 눈높이월계학원
김요셉 서울 대치SEP국어	유시준 서울 목동강국어수학과학학원	채수만 고양 백양고등학교
김정호 군산 김정호국어입시연구소	이가운 청주 서원고등학교	채혜지 구미 김선일국어학원
김지은 청주 올인원스터디랩 입시학원	이기용 연천고등학교	최강 대전 미담국어논술학원
김태현 인천 언해담국어학원	이선영 천안중앙고등학교	최복규 서울 기승전국어
김휘승 서산 고수학원	이예원 서울 송파지니국어논술학원	최소형 하남 꿈지락국어
문세원 김포 고촌고등학교	이은실 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	최예인 청주 최예인국어
박선아 부산 대신이룸학원	이은영 고양 이은영 국어학원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박수영 서울 은평대치국어학원	이태희 광주 올스터디학원	한재환 안양 JS EDU
박수인 서울 은평 탑학원	이혜원 부산 청어람학원	황규연 서울 한울국어학원

☘ 차 례

A 현대시 1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4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해바라기 씨(정지용), 낙타(신경림)

내신 대비 기출문제 19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복효근)
- 열매(오세영),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 유리창 1(정지용), 성 느티나무(나희덕)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24

- 절정(이육사), 생명(김남조)
- 소년(윤동주), 봄날(김기택)
- 부재(김춘수), 삶을 살아낸다는 건(황동규)
- 바람의 집-겨울 판화 1(기형도), 씨앗을 받으며(허영자)
- 수유나무에 대하여(신경림), 멸치(김기택)
- 달을 보며(한용운), 이사, 악양(박남준)
- 현 위의 인생(정끝별), 뿌리로부터(나희덕)
- 산길에서(이성부), 길(윤동주)
- 하늘만 곱구나(이용악),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나태주)
- 겨울밤의 꿈(김춘수), 개봉동과 장미(오규원)
- 지도(신석정), 목련 전차(손택수)
- 향구(이용악), 희망의 거쳐(이정록)
- 다시 봄이 왔다(이성복), 벽(김기택)
- 겨울(이상), 가시나무(천양희)
- 흰 그림자(윤동주), 연어의 나이테(복효근)

어휘 + 개념어 TEST 47

B 고전 시가 49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50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가마귀 검다 하고~(이직), 가마귀 눈비 마자~(박팽년),
여뀌꽃과 백로(이규보)

내신 대비 기출문제 54

- 속미인곡(정철), 사노친곡(이담명)
-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규원가(허난설헌)
- 꿈에 다니는 길에(이명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뉘헤(작자 미상)
- 만흥(윤선도)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60

- 규원가(허난설헌)
- 저곡전가팔곡(이휘일), 용추유영가(정훈)
- 고시(정약용),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 두터비 파리를 물고(작자 미상), 매화(권섭)
- 한거십팔곡(권호문)
- 상사별곡(작자 미상)
- 견회요(윤선도)

어휘 + 개념어 TEST 70

동아리 소개 / 서울대 TNT 72

C 시 복합, 수필 7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74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죽창곡(이규익), 노마설(홍우원)

내신 대비 기출문제 81

- 부벽루(이색), 산중잡곡(김득연), 능양시집서(박지원)
- 시에서의 전형적 인물, 저문 강에 삼을 씻고(정희성),
못 위의 잠(나희덕)
- 시조 문학에 대한 이해, 만흥(윤선도), 훈민가(정철)
- 시에 나타난 운명론적 세계관,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탄궁가(정훈)
-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 속미인곡(정철),
목동문답가(임우후)
- 도산십이곡(이황), 뒤지가 진적(이회승)
- 이화우 흙뿌릴 제(계량), 사미인곡(정철), 무소유(법정)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97

- 만보(이황), 별동 떨어진 데(윤동주)
- 수라(백석), 까치밭(송수권), 시적 공간의 특성과 기능
- 노계가(박인로), 자연과 문헌(이태준)
- 율리유곡(김광옥), 옥우당기(윤휴)
- 독락당(박인로), 방우산장기(조지훈)
- 용사음(최현), 원목(정약용)
- 상사별곡(이세보), 다도해기 5-일편낙토(정지용)
- 다시 밝은 날에 - 춘향의 말 2(서정주),
그리운 이 그리워(오세영), 함해당기(이종휘)
- 북새곡(구강), 귀산음(신교), 옛장수 생각(안도현)
- 상사곡(박인로), 고향 이루는 생각들(유경환)
- 곡목설(장유), 고공가(허전), 고공답주인가(이원익)
- 관서별곡(백광홍), 동행기(임춘)
- 풍계육가(이정), 포화육기(이학규)
- 한 손에 막대 잡고 ~ (우탁), 임이 오마 하거늘 ~ (작자 미상),
백리금파에서(김상용)
- 매호별곡(조우인), 양저설(어우봉)
-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오규원), 푸른 밤(나희덕),
속미인곡(정철)

어휘 + 개념어 TEST 134

동아리 소개 / 고려대 KUAAA 136

D 현대 소설 137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38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어머니(한승원)

내신 대비 기출문제 143

- 고향(현진건)
- 저건 사람도 아니다(서유미)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147

-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김주영)
- 티타임을 위하여(이선)
-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 청산택(조정래)
- 손퐁금(김원일)
-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 고향(이태준)
- 무사와 약사(홍성원)
-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박완서)
- 효풍(염상섭)
-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 인간단지(김정환)
- 잘못된 신에게도 있다(조세희)
- 철쭉제(문순태)
- 촛뜨기(이태준)
- 노을(김원일)
- 어떤 유서(김정환)
- 동행(전상국)
- 줄자(황석영)
- 다시 월문리에서(송기원)
- 매일 죽는 사람(조해일)
- 노찬성과 예반(김애란)
- 아득한 나날(김원우)
- 모순(양귀자)

어휘 + 개념어 TEST 203

E 고전 소설 205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06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이생규장전(김시습)

내신 대비 기출문제 213

- 임경업전(작자 미상)
- 소대성전(작자 미상)
- 유충렬전(작자 미상)
- 구운몽(김만중)
- 최고운전(작자 미상)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224

- 이대봉전(작자 미상)
- 월왕전(작자 미상)
- 옥소선(임방)
- 권익중전(작자 미상)
- 백학선전(작자 미상)
- 강릉추월전(작자 미상)
- 속향전(작자 미상)
- 주봉전(작자 미상)
- 진성운전(작자 미상)
- 유씨전(작자 미상)
- 옥단춘전(작자 미상)
- 두껍전(작자 미상)
- 이학사전(작자 미상)
- 두껍전(작자 미상)
- 민옹전(박지원)
- 강도몽유록(작자 미상)
- 유문성전(작자 미상)
- 왕경룡전(작자 미상)
- 월영낭자전(작자 미상)
- 소학사전(작자 미상)

어휘 + 개념어 TEST 269

F 극 문학, 소설 복합 271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72

<지문 체크 문제 + ○/× 확인 문제>

- 집으로(이정향 극본)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278

- 날개 또는 수갑(윤홍길)
- 불꽃(선우휘 원작, 이은성 · 윤삼육 각색)
- 전하(신명순)
- 경직한 사기한(오영진)
- 염쟁이 유씨(김인경)
- 대장금(김영현)

어휘 + 개념어 TEST 290



어휘 총정리 292

빠른 정답 찾기 305



독해 공식+지문·문제 특강으로 쉽고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1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의 독해 공식으로 수능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문학 갈래 쉽게 읽는 법: 갈래별로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A 현대시

회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현대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 현대시 독해 공식 적용하기**

-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강조 치기

현대시 쉽게 읽는 법: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주목하기

[A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 실시 9월 학평 43~45/22)

(가) 해마라기 씨를 ○ 실적, 담포동이 창채 는 송기고 해마라기 씨를 실적.

누나가 손으로 ○ 단지고 나뉘 바둑이가 알밭로 다지고 쟁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는 잡고 한밤 자고 나뉘

(나)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 별과 달과 새와
드래방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제상사 뜰이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커낼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한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새와

2 지문 분석 특강으로 독해 공식 적용 훈련

-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 문제에 실제 적용하며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특강 <빈칸을 채우시오.>

★ 현대시

독해 공식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작품 속 '나'이며,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이나 반복되는 시어인 경우가 많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본다.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을 지문에서 살핀다.

1st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3 문제 풀이 특강으로 갈래별 대표 유형 정복!

-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 선택지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X 확인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를 근거와 해설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특강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A01 작품 비교하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류 기준에 독 시어에 관한] [㉠ 7% ㉡ 4% ㉢ 84% ㉣ 2% ㉤ 1%]

① 도사의 방식은 자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X)

② 공감에 식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원격함을 부각하고 있다. (○, X)

③ 공감적 상상을 통하여 시적 상황, 시인의 정서, 시의 의의 등 하나의 경 건이 동시에 다른 시인의 정서를 환기함으로써 일어나는 상상 (○, X)

④ 선언에 강조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X)

A02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 ㉡ 3% ㉢ 78% ㉣ 9% ㉤ 5%]

① ㉡의 정유정을 반복하여 '해마라기 씨'를 실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X)

② ㉢의 행위를 반복하여 '해마라기 씨'를 피우기 위해 여럿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X)

③ ㉣에서 시인의 정유를 계신하여 '해마라기'가 '고개'를 '들기' 까지 기다려지 못 코 배는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X)

4 내신 대비 기출문제,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 내신 대비 기출문제: 교과서와 연계된 지문 중 최신 학교 시험 경향에 맞는 기출문제를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최신 고2 학력평가 문항으로 완벽하게 훈련하면 수능 국어 1등급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내신 대비 기출문제

[A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 실시 9월 학평 43~45/22)

(가) 나무도 여러 길의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이나루 길으로 나는 편지 가져와 거두어 실지 않았습디다

원래와 부동함을 나타내 피우고 시 있는 그 나무는 아바 사발이 알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떨러진 ◎ 알못로인 지나섬을 포함한다

원래와 부동함 사이에 수현의 뱀발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일러서 알았습디다

눈부서 눈부서 알았습디다

피우고 실은 꽃빛이 나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이르렀을 것이지만 의로운 줄도 불렀을 것일나타 그 여러 길의 마음을 있는 데 왕 오래 걸렸습디다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A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 실시 9월 학평 43~45/22)

(가) 생명의 계절의 계절에 관계 마일대 북향으로 힘들이 요다.

학살도 그만 시적 관단 고원(高原) 서있발 일갈한 그 위에 서다.

아래다 무릎 꿇아 리나 한 발 계게 더할 곳조차 없다.

아래에 눈 감아 생각에 불행에 겨울은 상탈로 될 무지개가 보다.

— 이희상 (2022)

(나)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말자빛고 연 달에 꽃호 초록의 겨울로. 생명의 여마다 단 조 추운 몸으로 왔다

정실도 부서지고 불타면서 버려지고 그 울려면서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연도날로 개 동 잃은 열이속 인 날라? 숨겨? 이따가?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 출처 표시
- 예) 2022 실시 3월 학평(고): 2022년 3월에 실시한 고2 학력평가
- 난이도: ★ 1등급 대비, *** - 상, *** - 중, *** - 하

문항 배열 및 구성 [기출 414문항, 어휘+개념어 테스트 348문항]

①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414문항 11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내신·학력평가·수능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11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내신 대비용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 선별 수록

- 9종 교과서의 수록 작품, 개념과 연관된 문제를 학력평가 기출에서 선별·수록하였습니다.
-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출제된 문제와 함께 '내신 대비 기출문제'에 모았습니다.
내신 시험 대비에 활용해 보세요.

③ 어휘+개념어 총정리(표제어 643개)

- 지문과 문제 속 어휘와 개념어의 뜻을 모두 모아 예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가 있다면,
어휘+개념어 총정리에서 그 뜻과 용례를 확인해 보세요.

④ 문학 독해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개념어 테스트 수록 (348문항)

- 갈래별 빈출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어휘 + 개념어 TEST'를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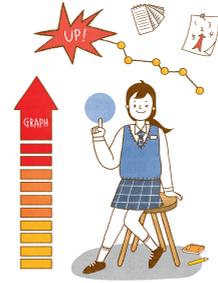
[수능 국어 문학 기본 문항 구성표] - 고2 학력평가 문학 문항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문항 수	비고
2023	15	15	15	-	45	• 최신 5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 11개년 고2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22	15	15	15	15	60	
2021	15	15	15	15	60	
2020	15	15	15	15	60	
2019	15	15	15	15	60	
2018	11	15	15	15	56	
2017	6	8	7	7	28	
2016	7	6	5	3	21	
2015		3			3	
2014	6	3	3	6	18	
2013			3		3	
총 문항 수					414	

자이스토리 문학 기본 활용법+α

①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으로 독해력 자신감 상승!

- 문학 지문의 갈래는 크게 6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갈래에 최적화된 독해 공식을 반복하여 연습하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두려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② 갈래별로 분류된 기출문제 풀기!

- 갈래별로 분류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이 취약한 영역을 알게 됩니다.
- 취약한 영역일수록 동일한 갈래의 지문과 문제 여러 세트를 풀어봄으로써 지문 독해 방법을 체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실력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어휘+개념어 총정리

- 어려운 어휘나 문학 개념어가 활용되는 문제는 고난도가 아님에도 정답률이 낮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국어도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의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 문제를 풀다 모르는 어휘, 개념어가 나오면 어휘+개념어 총정리를 활용해 보세요.
- 어휘+개념어 총정리에 제시된 어휘만 익혀도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④ 단원별 어휘+개념어 TEST로 마무리!

- 지문별 어휘·개념어를 빠짐없이 학습하고 '어휘+개념어 TEST'로 어휘 실력을 점검하세요.
- 어휘+개념어 TEST를 풀다 틀린 어휘나 개념어는 다시 그 뜻과 용례를 익혀 두세요.

⑤ 입체 첨삭 해설까지 꼭 확인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모두 해설을 통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 틀린 문제와 짝어서 맞힌 문제는 꼭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문제 분석, 정답 근거, 선택지 첨삭 해설 등)도 잊지 말고 살펴 보세요.
- 모든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정답', '왜 오답', '단서+발상', '매력 오답'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자이스토리의 입체 첨삭 해설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록 작품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순 수록)

〈현대시〉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A 01~03	낙타(신경림)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A 01~03	해바라기 씨(정지용)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32~34	뿌리로부터(나희덕)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32~34	현 위의 인생(정끝별)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A 16~18	봄날(김기택)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A 16~18	소년(윤동주)
2022 실시 11월 학평 39~41	A 19~21	부재(김춘수)
2022 실시 11월 학평 39~41	A 19~21	삶을 살아낸다는 건 (황동규)
2022 실시 9월 학평 25~27	A 41~43	개봉동과 장미(오규원)
2022 실시 9월 학평 25~27	A 41~43	겨울밤의 꿈(김춘수)
2022 실시 6월 학평 43~45	A 54~56	거울(이상)
2022 실시 6월 학평 43~45	A 54~56	가시나무(천양희)
2022 실시 3월 학평 35~37	A 04~06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2022 실시 3월 학평 35~37	A 04~06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복효근)
2021 실시 11월 학평 20~22	A 47~49	항구(이용악)
2021 실시 11월 학평 20~22	A 47~49	희망의 거처(이정록)
2021 실시 9월 학평 39~42	A 50~53	다시 봄이 왔다(이성복)
2021 실시 9월 학평 39~42	A 50~53	벽(김기택)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07~09	대장간의 유혹 (김광규)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07~09	열매(오세영)
2021 실시 3월 학평 19~23	C 18~22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2020 실시 11월 학평 35~37	A 13~15	생명(김남조)
2020 실시 11월 학평 35~37	A 13~15	절정(이육사)
2020 실시 9월 학평 22~25	A 22~25	바람의 집-겨울 판화 1(기형도)
2020 실시 9월 학평 22~25	A 22~25	씨앗을 받으며(허영자)
2020 실시 6월 학평 43~45	A 26~28	멸치(김기택)
2020 실시 6월 학평 43~45	A 26~28	수유나무에 대하여 (신경림)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달을 보며(한용운)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이사, 약양(박남준)
2019 실시 11월 학평 36~38	A 57~59	흰 그림자(윤동주)
2019 실시 11월 학평 36~38	A 26~28	언어의 나이테 (복효근)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97~101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 면서 -순례 11(오규원)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97~101	푸른 밤(나희덕)
2019 실시 6월 학평 35~37	A 35~37	길(윤동주)
2019 실시 6월 학평 35~37	A 35~37	산길에서(이성부)
2019 실시 3월 학평 31~33	A 38~40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나태주)
2019 실시 3월 학평 31~33	A 38~40	하늘만 굽구나(이용악)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63~66	그리운 이 그리워(오세영)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63~66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 2(서정주)
2018 실시 9월 학평 22~25	C 38~41	까치밥(송수권)
2018 실시 9월 학평 22~25	C 38~41	수라(백석)
2018 실시 6월 학평 25~28	C 10~13	못 위의 잠(나희덕)
2018 실시 6월 학평 25~28	C 10~13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
2018 실시 3월 학평 21~23	A 44~46	목련 전차(손택수)
2018 실시 3월 학평 21~23	A 44~46	지도(신석정)
2017 실시 3월 학평 43~45	A 10~12	성 느티나무(나희덕)
2017 실시 3월 학평 43~45	A 10~12	유리창 1(정지용)

〈고전 시가〉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C 34~37	만보(이황)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67~71	귀산음(신교)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67~71	복새곡(구강)
2023 실시 3월 학평 31~34	C 42~45	노계가(박인로)
2022 실시 11월 학평 31~34	C 01~04	죽창곡(이궁익)
2022 실시 9월 학평 38~41	C 80~83	관서별곡(백광홍)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05~09	부벽루(이색)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05~09	산중잡곡(김득연)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89~92	임이 오마 하거늘 ~ (작자 미상)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89~92	한 손에 막대 잡고 ~ (우탁)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C 93~96	매호별곡(조우인)
2021 실시 9월 학평 16~19	C 27~30	도산십이곡(이황)
2021 실시 6월 학평 26~29	C 46~49	육유당기(윤휴)
2021 실시 6월 학평 26~29	C 46~49	율리유곡(김광육)
2021 실시 3월 학평 19~23	C 18~22	탄궁가(정훈)

2020 실시 11월 학평 42~45	C 23~26	목동문답가(임유후)
2020 실시 11월 학평 42~45	C 23~26	속미인곡(정철)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B 20~23	몽추유영가(정훈)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B 20~23	저곡전가팔곡(이취일)
2020 실시 6월 학평 21~25	C 84~88	풍계육가(이정)
2020 실시 3월 학평 29~32	C 50~53	독락당(박인로)
2019 실시 11월 학평 31~35	C 54~58	용사음(최현)
2019 실시 9월 학평 22~26	C 97~101	속미인곡(정철)
2019 실시 6월 학평 43~45	B 24~26	고시(정약용)
2019 실시 6월 학평 43~45	B 24~26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2019 실시 3월 학평 42~45	C 59~62	상사별곡(이세보)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04~07	사노친곡(이담평)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04~07	속미인곡(정철)
2018 실시 9월 학평 42~45	C 72~75	상사곡(박인로)
2018 실시 6월 학평 43~45	C 31~33	사미인곡(정철)
2018 실시 6월 학평 43~45	C 31~33	이화우 흠뿌릴 제(계량)
2018 실시 3월 학평 42~45	C 76~79	고공가(허전)
2018 실시 3월 학평 42~45	C 76~79	고공답주인가(이원익)
2017 실시 6월 학평 26~29	C 14~17	만흥(윤선도)
2017 실시 6월 학평 26~29	C 14~17	훈민가(정철)
2016 실시 9월 학평 33~35	B 08~10	규원가(허난설헌)
2016 실시 9월 학평 33~35	B 08~10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2016 실시 6월 학평 31~33	B 01~03	가마귀 겹다하고~(이직)
2016 실시 6월 학평 31~33	B 01~03	가마귀 눈비 마자 ~ (박팽년)
2016 실시 6월 학평 31~33	B 01~03	여귀꽃과 백로(이규보)
2016 실시 3월 학평 41~43	B 27~29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작자 미상)
2016 실시 3월 학평 41~43	B 27~29	매화(권섭)
2015 실시 6월 학평 37~39	B 17~19	규원가(허난설헌)
2014 실시 11월(B) 학평 31~33	B 33~35	상사별곡(작자 미상)
2014 실시 11월(A) 학평 34~36	B 30~32	한거십팔곡(권호문)
201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1~13	꿈에 다니는 길에(이명환)
201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1~13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뒤희~(작자 미상)
201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1~13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작자 미상)
2014 실시 9월(AB) 학평 37~39	B 14~16	만흥(윤선도)
2014 실시 3월(AB) 학평 41~43	B 36~38	견회요(윤선도)

〈현대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3 실시 9월 학평 16~19	D 53~56	고향(이태준)
2023 실시 6월 학평 26~28	D 01~03	어머니(한승원)
2023 실시 3월 학평 35~38	D 74~77	매일 죽는 사람 (조해일)
2022 실시 11월 학평 35~38	D 70~73	효풍(염상섭)
2022 실시 9월 학평 21~24	D 92~95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조세희)
2022 실시 6월 학평 35~37	D 81~83	노찬성과 예반 (김애란)
2022 실시 3월 학평 26~29	D 11~14	고기잡이는 갈대를 꺼지 않는다(김주영)
2021 실시 11월 학평 38~41	D 88~91	아득한 나날(김원우)
2021 실시 9월 학평 35~38	D 96~99	모순(양귀자)
2021 실시 6월 학평 30~33	D 07~10	저건 사람도 아니다 (서유미)
2021 실시 3월 학평 43~45	D 15~17	티타임을 위하여(이선)
2020 실시 11월 학평 38~41	D 18~21	철쭉제(문순태)
2020 실시 9월 학평 26~29	D 22~25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2020 실시 6월 학평 35~37	D 78~80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2020 실시 3월 학평 21~24	D 26~29	흔뜨기(이태준)
2019 실시 11월 학평 43~45	D 30~32	청산덕(조정래)
2019 실시 9월 학평 39~42	D 33~36	노을(김원일)
2019 실시 6월 학평 20~24	F 04~08	날개 또는 수갑(윤홍길)
2019 실시 3월 학평 34~38	D 37~41	손퐁금(김원일)
2018 실시 11월 학평 21~23	D 42~44	어떤 유서(김정환)
2018 실시 9월 학평 33~36	D 45~48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2018 실시 6월 학평 34~36	D 49~52	동행(전상국)
2017 실시 11월 학평 34~36	D 57~59	줄자(황석영)
2017 실시 9월 학평 39~42	D 60~63	무사와 악사(홍성원)
2017 실시 6월 학평 23~25	D 84~87	인간단지(김정환)
2017 실시 3월 학평 16~18	D 64~66	다시 월문리에서(송기원)
2016 실시 11월 학평 38~40	D 67~69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박완서)
2014 실시 3월(B) 학평 35~37	D 04~06	고향(현진건)

〈고전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3 실시 9월 학평 31~34	E 20~23	유충렬전(작자 미상)
2023 실시 6월 학평 39~42	E 95~98	소학사전(작자 미상)
2023 실시 3월 학평 39~42	E 01~04	이생규장전(김시습)
2022 실시 11월 학평 42~45	E 36~39	두껍전(작자 미상)
2022 실시 9월 학평 42~45	E 79~82	왕경룡전(작자 미상)
2022 실시 6월 31~34	E 83~86	진성운전(작자 미상)
2022 실시 3월 학평 42~45	E 87~90	월영낭자전(작자 미상)
2021 실시 11월 학평 34~37	E 91~94	유씨전(작자 미상)
2021 실시 9월 학평 43~45	E 09~11	구운몽(김만중)
2021 실시 6월 학평 34~37	E 28~31	옥단춘전(작자 미상)
2021 실시 3월 학평 28~31	E 32~35	월왕전(작자 미상)
2020 실시 11월 학평 31~34	E 40~43	옥소선(임방)
2020 실시 9월 학평 30~32	E 44~46	이학사전(작자 미상)
2020 실시 6월 학평 31~34	E 24~27	이대봉전(작자 미상)
2020 실시 3월 학평 25~28	E 12~15	소대성전(작자 미상)
2019 실시 11월 학평 39~42	E 47~50	권익중전(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27~29	E 51~53	두껍전(작자 미상)
2019 실시 6월 학평 31~34	E 54~57	백학선전(작자 미상)
2019 실시 3월 학평 39~41	E 58~60	민옹전(박지원)
2018 실시 11월 학평 42~45	E 61~64	강릉추월전(작자 미상)
2018 실시 9월 학평 26~28	E 65~67	강도몽유록(작자 미상)
2018 실시 6월 학평 21~24	E 05~08	임경업전(작자 미상)
2018 실시 3월 학평 29~32	E 68~71	숙향전(작자 미상)
2017 실시 11월 학평 42~45	E 72~75	유문성전(작자 미상)
2017 실시 9월 학평 43~45	E 76~78	주봉전(작자 미상)
2016 실시 3월 학평 34~37	E 16~19	최고운전(작자 미상)

〈극문학〉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1 실시 3월 학평 16~18	F 09~11	전하(신명순)
2019 실시 9월 학평 43~45	F 01~03	집으로(이정향 극본)
2019 실시 6월 학평 20~24	F 04~08	불꽃(신우휘 원작, 이은성·윤삼육 각색)
2016 실시 9월 학평 44~45	F 12~14	정직한 사기한(오영진)
2016 실시 6월 학평 43~45	F 14~16	염쟁이 유씨(김인경)
2013 실시 9월(A) 학평 43~45	F 17~19	대장금(김영현)

〈현대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C 34~37	별뿔 떨어진 데(윤동주)
2023 실시 6월 학평 16~20	C 67~71	옛장수 생각(안도현)
2023 실시 3월 학평 31~34	C 42~45	자연과 문헌(이태준)
2021 실시 9월 학평 16~19	C 27~30	뒤지가 진적(이희승)
2019 실시 3월 학평 42~45	C 59~62	다도해기 5 - 일편낙토 (정치용)
2018 실시 9월 학평 42~45	C 72~75	고향 이르는 생각들 (유경환)
2018 실시 6월 학평 43~45	C 31~33	무소유(법정)

〈고전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2 실시 11월 학평 31~34	C 01~04	노마설(홍우원)
2022 실시 9월 학평 38~41	C 80~83	동행기(임춘)
2022 실시 6월 학평 21~25	C 05~09	능양시집서(박지원)
2022 실시 3월 학평 16~19	C 89~92	백리금파에서(김상용)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C 93~96	양저설(어유봉)
2020 실시 6월 학평 21~25	C 84~88	포화옥기(이학규)
2020 실시 3월 학평 29~32	C 50~53	방우산장기(조지훈)
2019 실시 11월 학평 31~35	C 54~58	원목(정약용)
2018 실시 11월 학평 24~27	C 63~66	함해당기(이종휘)
2018 실시 3월 학평 42~45	C 76~79	곡목설(정유)



시 복합, 수필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내신 대비 기출문제
-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 시 복합, 수필 독해 공식

시와 수필, 시와 소설 등 복합적인 갈래가 함께 묶여 출제되거나, 시와 설명문이 같이 출제되는 것을 시 복합이라고 한다.

★ 시 복합 독해 공식

- 1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 2 시, 수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 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 수필 독해 공식

- 1 중심 대상 찾기
- 2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시 복합, 수필 문제 유형별 특강

시 복합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시, 고전 시가의 문제 풀이 방법을 활용한다. 여기에 수필 문제, 설명문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의 풀이 방법을 더하면 시 복합의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 설명문(<보기>)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

① 설명문(보기)의 내용 파악하기

설명문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② 설명문(보기)을 바탕으로 감상하기

설명문에 제시된 작품 정보를 관련 부분 파악하기

* 수필 문제

①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②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파악하기

중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파악하기

★ 최신 3개년 고2 학력평가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3	3월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가) 노계가(박인로), (나) 자연과 문헌(이태준)	***
	6월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가) 복새곡(구강), (나) 귀산음(신교) (다) 옛장수 생각(안도현)	***
	9월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가) 만보(이황), (나) 별동 떨어진 데(윤동주)	***
	11월	
2022	3월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한 손에 막대 잡고(우탁), (나) 임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다) 백리금파에서(김상용)	***
	6월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부벽루(이색), (나) 산중잡곡(김득연), (다) 능양시집서(박지원)	***
	9월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관서별곡(백광홍), (나) 동행기(임춘)	***
	11월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죽창곡(이공익), (나) 노마설(홍우원)	***
2021	3월 설명문 + 현대시 + 고전 시가 설명문, (가)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나) 탄궁가(정훈)	***
	6월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율리유곡(김광옥), (나) 육우당기(윤휴)	***
	9월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가) 도산십이곡(이황), (나) 뒤지가 진적(이희승)	***
	11월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가) 매호별곡(조우인), (나) 양저설(어유봉)	***

★ 최신 출제 경향 및 분석

- 2023년 고2 3월 학평에서는 고전 시가인 박인로의 <노계가>와 현대 수필인 이태준의 <자연과 문헌>이 출제되었다.
- 2023년 고2 6월 학평에서는 고전 시가인 구각의 <복새곡>, 신교의 <귀산음>과 현대 수필인 안도현의 <옛장수 생각>이 출제되었다.
- 2023년 고2 9월 학평에서는 고전 시가인 이황의 <만보>와 현대 수필인 윤동주의 <별동 떨어진 데>가 출제되었다.
- 최근 학평에서 갈래 복합은 고전 시가와 현대 수필이 묶여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여러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에 대비해야 한다.



C 시 복합, 수필

시 복합은 설명문과 현대시, 고전 시가, 수필 갈래의 작품이 복합적으로 출제됩니다.

*시 복합 독해 공식 적용하기

- ①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 ② 시, 수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 ③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시 복합 쉽게 읽는 법: 설명문과 <보기>는 작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므로 가장 먼저 읽고, 각 작품은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C01 ~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시가 + 수필] [2022 실시 11월 학평 31~34 (고2)]

(가) 죽창(竹窓)의 병(病)이 깊고 포금(布衾)이 냉낙(冷落) 혼대*
 돌미나리 혼중으로 석찬(夕饌)을 혼자터니
 상 위에 그저 노코 님 싱각 혼는 뜻은
 아리자온 님의 거동(舉動) 친(親) 혼적 업건마는
 불관(不關) 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월노(月老)의 노(繩)* 흘 띠가 연분(緣分)도 하 중(重) 혼고
 조물(造物)이 새오던가 박명(薄命)* 흠도 그지업다
 (중략)

이팔(二八) 방년(芳年)이 손꼽아 다드르니
 십니(十里) 벽도화(碧桃花)의 구름이 머흔 속의
 내 소식 님 모르고 ㉠ 님의 집 나 모를 제
 세스(世事)의 마(魔)히 고하* 홍안(紅顏)이 복(福)이 업서
 하르밤 놀난 우레 풍우(風雨)조차 섯거치니
 뜰알피 심근 규화(葵花) 못피여 시들거다
 혼 고기 흐린 물이 윈 못을 더러인다
 형극(荊棘)의 씨던 불이 난혜총(蘭蕙叢)의 붓터오니*
 내 얼굴 고은 줄을 님이 엇디 알으시고
 화공(畫工)의 붓긋호로 그려 내여 올닐 손가
 연년(延年)의 가곡(歌曲)으로 썩여다가 도도올가
 대가티 고든 절(節)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

- 이규익, <죽창곡(竹廳曲)>

- * 포금이 냉낙 혼대: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 * 불관 혼: 관계없는
- * 월노의 노: 남녀의 인연을 맺어 주는 끈
- * 박명: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
- * 세스의 마히 고하: 세상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
- * 형극의 씨던 불이 난혜총의 붓터오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혜초 무더기에 붙으니

(나) 승정(崇禎)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 운(雲)을 시켜 마구간 바닥에 매어 엮드려 있는 말을 끌어 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매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말아,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자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말아.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 놓아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 말은 이에 귀를 쫓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컨대,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백 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은 가난 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쪽으로 사방의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집에는 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둬서 없었고, 광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으나, 아침에는 된 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 십 몇 백리를 짐을 싣고 달리며 짐을 싣고 뛰며 옮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중략)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 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세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막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애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이에 실의(失意)하여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옛날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管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나,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견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어 노비 운(雲)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 당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다.

- 홍우원, <노마설(老馬說)>

C01 *** 2022 실시 11월 학평 31(고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C02 *** 2022 실시 11월 학평 32(고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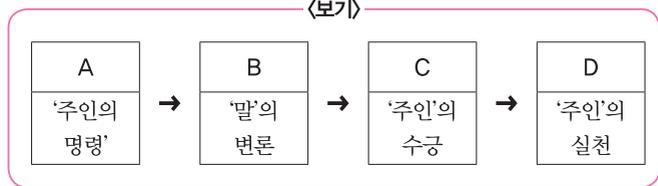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입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흔춤으로 석찬을 흐자터니’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군.
- ② ‘님의 거동 친 흔적 업건마는’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조물이 새오던가’와 ‘세스의 마히 고하’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뜰알피 심근 규화 못피여 시들거다’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대가티 고든 절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겠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은 '나'와 '님'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역할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나'와 '님'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은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나'와 '님'의 현실 인식이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보기〉는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여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에서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③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 ④ C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반복하여 노비에게 '말'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st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가)의 제목은 <죽창곡>이므로, (가)에서는 대나무 창가에서 느낀 마음을 노래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 C02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가)는 유배를 하는 작가가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임, 즉 임금과 헤어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제목은 <노마설>이므로, 중심 대상이 노마(老馬), 즉 늙은 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 C04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나)는 '주인과 말'의 대화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 복합 독해 공식

- 1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 2 시, 수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 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시 독해 공식	수필 독해 공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심 대상 찾기 2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제시된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갈래 복합에서 반드시 출제되므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파악한다.

2nd 독해 공식 ①, ②, ③을 적용해 본다.

1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C02 <보기>를 통해 (가) 작품의 창작 배경, 작품의 내용, 주제 의식을 추측할 수 있다.

C02 <보기> 분석

- <죽창곡>은 작가가 타인의 잘못으로 유배를 할 때 지어진 작품임.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이별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나타남.

→ 주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C04 <보기>를 통해 (나) 작품의 구조를 알 수 있음.

C04 <보기> 분석

- <노마설>은 (1) 와/과 '말'의 대화의 구조로 이루어짐.

→ 구조: '주인의 명령 - 말의 변론 - 주인'의 수긍 - '주인'의 실천

3rd 고전 시가 독해 공식에 따라 (가) 읽기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이 내 몸'에서 (가)의 화자 '나'가 드러난다.

이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중심 대상은 '님'이다.

- 화자: '나'
- 중심 대상: '님'(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의 이별 상황을 '병이 깊'다고 표현하며, '석찬'은 먹지도 않고 '님 생각'을 한다. 화자는 자신과 임의 인연을 '월노'가 이어준 '연분'으로 생각하면서, 이별에 대해 '조물'과 '세사의 마'를 탓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시든 '규화'에 비유하고, '대가티 고든 절'을 '님'이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C02에 따르면 이는 각각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상황: 화자가 자신과 임의 인연을 (2) 이가 이어준 운명이라고 인식하지만, 현재 이별한 상황임.
- 정서: 임에 대한 그리움
- 태도: 현재 조물주를 탓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자신의 현재 처지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림.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대구법(비슷한 구성의 문장을 나란히 놓는 표현 방법)을 통해 임의 소식을 모르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 화자에게 닥친 시련을 우레와 비바람으로 비유하여 표현함.
- 접시꽃이라는 (3)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낼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을/를 사용하여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함.
- 설의법(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표현법)을 통해 소망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함.
- 직유법(연결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는 표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곁은 절개와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현함.

*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시어, 구절	표면적 의미	이면적 의미
'나'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 여성 화자	유배지에 있는 신하
'님'	'나'를 버리고 떠난 대상	임금
'내 몸이 님을 조차 삼키오니'	'나'가 '님'을 따름.	신하로서 임금을 모심.
'구름이 머흔 속의'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임금과 신하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
'훈 고기 흐린 물이 원 못을 더러인다'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의 물을 어지럽힘.	당파 싸움으로 인해 모함을 받아 유배를 오게 됨.
'형극의 딴 불이 난혜층의 붓터오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헤초 무더기에 옮겨 붙음.	글쓴이(이공익)의 부친이 당쟁으로 희생당하면서 집안 전체에 화가 닦침.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과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치 않는 사랑이다.



4th 수필 독해 공식에 따라 (나) 읽기

1 중심 대상 찾기

주인과 말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드러난다.
중심 대상은 '주인'과 '말'이다.

- 중심 대상: 주인, 말

2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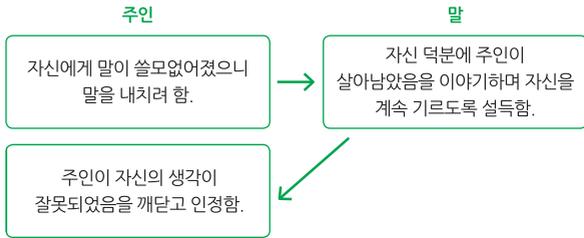
주인은 자신에게 높은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며 가버리라고 명령하지만, 말은 자신의 과거의 공을 내세워 주인을 설득한다. 주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비에게 말을 잘 보살피도록 한다.

- 글쓴이의 생각, 태도: 과거의 공이 많은 말을 높였다는 이유로 내치려는 주인의 모습을 비판함.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주인과 높은 말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됨.
- 말을 의인화(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냄.)하여 말이 했을 법한 말을 표현함.
- 주인의 가난했던 과거 모습을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인이 말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강조함.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말에게 죄가 없음을 강조함.
- 관중의 높은 말 고사(관중이 높은 말을 이용하여 길을 찾았다는 고사)를 인용함.

* (나)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나)는 말에게 큰 도움을 받고도 쓸모를 따져 말을 버리려 하는 주인의 행태를 통해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적인 태도를 (4)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이익만을 따져 함부로 버리거나 소홀히 대하는 삶의 태도 비판이다.

★ 왜 두 작품?

공통점: (가)의 화자는 입에 의해 이별 상황에 놓이고, (나)의 '말'은 주인에게서 버림받을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하다.

차이점: (가)의 화자는 입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현하고 (나)의 '말'은 항변하여 주인의 마음을 돌린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정답 (1) 주인 (2) 월하노인 (3) 객관적 상관물 (4) 비판

C01 작품 비교하기

(가)와 (나)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 복합, 수필 지문에서 꼭 나오는 유형]

- [① 11% ② 5% ③ 5% ④ 2% ⑤ 74%]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O, X)
(가), (나) 모두 드러나지 않음.

[역설적 표현: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나,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법]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O, X)
(가), (나) 모두 드러나지 않음.

명암의 대비는 밝은 이미지와 어두운 이미지를 대비하여 나타내는 것인데, (가)와 (나)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드러나지 않음. (나)에만 나타남.

(O, X)

(가)는 화자가 임과 이별하여 홀로 지내는 '죽창'이라는 공간이 제시되었을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작품 전체에서 변함이 없으므로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간의 이동과 무관하게 '주인'과 '말'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주인'의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드러나지 않음.

(O, X)

음성 상징어는 소리나 움직임을 표현한 말인데,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가) '~을닐 손가, (나) '~있는가?
있다.

(O, X)

- (가) ②-⑩ 화공의 붓긋호로 그려 내어 울닐 손가
- (가) ③-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가)에서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나)에서는 말에게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강

★ 작품 비교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상/서술상 특징 확인하기
- ② 작품에서 그 표현상/서술상 특징이 나타난 부분 찾기

C02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감상하기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2% ② 70% ③ 8% ④ 9% ⑤ 8%]

<보기>

①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조물주가 시샘한다고 이야기함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임과 이별한 상황이 드러남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세상일에 미가 깨 이별하게 되었다고 화자가 생각함 규화가 시들었음. 대나무 같은 절개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① '병이 깊고'와 '돌미나라 혼쫓으로 석찬을 하자더니'를 통해 임과 이별해 든 병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군. (○, ×)

* 근거: (가) ①-①~③

임과의 이별로 인해 '병이 깊고'는 임과 이별해 마음의 병이 든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화자는 입맛을 잃어 '석찬'도 '그저 노코 님' 생각만 하고 있다.

② '님의 거동 친 혼적 업건마는'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 오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겠군. (○, ×)

* 근거: (가) ①-④, ⑤

'님의 거동 친 혼적 업건마는'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 오니'는 화자는 임과 친한 적 없지만, 화자와 임이 운명적 관계임을 나타낸다.

③ '조물이 새오던가'와 '세스의 마히 고하'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

* 근거: (가) ①-⑦, (가) ②-④

'조물이 새오던가'는 '조물주가 시샘하였던가'라는 뜻으로,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스의 마히 고하'는 '세상일에 미가 꺾어'라는 뜻으로,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세상살이를 방해하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뜰알피 심근 규화 못피여 시들거다'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겠군. (○, ×)

* 근거: (가) ②-⑤

피지 못하고 시든 '규화'는 임과 이별하여 그리움 속에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⑤ '대가티 고든 절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겠군. * 근거: (가) ②-⑫ (○, ×)

화자의 지조, 절개를 대나무에 빗댄.

'대가티 고든 절'은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특강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해석의 관점) 파악하기
- ②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해석의 관점)와 관련된 부분 찾기
- ③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하기

C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주인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의 집'

[① 77% ② 4% ③ 3% ④ 12% ⑤ 1%]

① ㉠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 근거: (가) ②-③ (나) ②-③

(가)에서 ㉠은 화자가 '님의 집'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임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나)에서 ㉡은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늙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은 '나'와 '님'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역할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가)에서 '나'는 '님'을 좇아 생긴 존재로, 이 둘 사이에 역할이 바뀐 적은 없다.

(나)에서 '말'의 역할은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주인'의 역할은 '말'을 보살피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역할이 확정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이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③ ㉠은 '나'와 '님'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가)에서 '나'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이 그리움은 끝내 해소되지 않는다.

(나)에서 '말'은 늙어서도 '주인'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나, '주인'은 쓸모없다며 늙은 말을 버리려고 하여 갈등이 드러난다. 그러나 '말'과 '주인'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

④ ㉠은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가)에서 '나'와 '님'의 상황은 현재 이별의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나)에서 '말'이 '주인'을 도울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 '주인'은 '말'이 쓸모없어졌다며 말을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지 않는다.

⑤ ㉠은 '나'와 '님'의 현실 인식이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가)에서 '나'는 '님'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나)에서 ㉡ '주인집'은 '옛날'에 '말'이 '주인'을 위해 노력하고 '주인'도 '말'을 고마워했던, 과거의 긍정적 관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특강

★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시의 내용과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 ②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C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감상하기

<보기>는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 ② 64% ③ 21% ④ 5% ⑤ 4%]



① A에서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

(나) ①-③, ④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주인'은 '말'이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다는 현재 상태를 근거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여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에서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 ~~변함을 인정함~~하고 있다. (○, ×)

(나) ②-⑧, ⑩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 십 몇 백리를 짐을 싣고 달리며 짐을 싣고 뛰며 율기기에 ~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

B에서 '말'은 과거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여 A에서 '주인'이 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한 때와 노쇠해진 지금의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고 있지는 않다.

③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 ×)

(나) ②-⑩, ⑪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는 데 있어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과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 정도면 충분하고, 자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힘'과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매력 오답

B에서 '말'이 한 말이 자신을 보살피 달라는 이야기인 줄로 오해하여, '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말'이 노쇠하였지만, 주인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써 달라고 말한 것임을 알아야 했다.

④ C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

(나) ③-④ 옛날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管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나,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주인'은 '관자'가 늙은 말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여 노비에게 '말'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

(나) ④-②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욱 당함이 없도록 하라."

'주인'은 '말'에게 나가라고 했던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고, 노비에게 '말'을 잘 먹이고 '욕 당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특강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해석의 관점) 파악하기
→ <노마설>은 '주인'과 '말'의 대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해석의 관점)와 관련된 부분 찾기
→ '주인'의 명령, '말'의 변론, '주인'의 수긍, '주인'의 실천이 순서대로 나타남.
- ③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하기

- C01 ①× ②× ③× ④× ⑤○
 C02 ①○ ②× ③○ ④○ ⑤○
 C03 ①○ ②× ③× ④× ⑤×
 C04 ①○ ②× ③○ ④○ ⑤○

정답



[비상(한) 연계]

[E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한 시간 5분

경업은 도임한 뒤로 군대의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염탐했다. 이것을 안 경업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내어

“되놈들을 잡아들이라!”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들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A] “내 몇 년 전 가달 왕에게 항복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 주었을 때, 너희는 은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불망비도 세우지 않았던가? 그걸 벌써 잊고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에 넘치는 짓은 생각도 하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것이다.”

경업이 포로들을 끌어 내치니, 호병들이 쥐 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대장과 군졸들에게 일의 전말을 보고했다. 이 들은 호국 장수들이 크게 분개했다.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욕되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혼드는구나. 내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호국 장수는 곧바로 정예 병사 7천 명을 뽑아 조선으로 향했다. 군사들이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조선국 의주 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네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막아 보아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하여 목숨을 아끼거라.”

이 말을 경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워 물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적병들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떨어졌다.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의주 군졸들이 장군의 용맹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 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 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적병이 돌아가 호국 왕에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분개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의주 감영으로 돌아와 승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이때 호국 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의주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호왕의 말에 좌우에서 말했다.

“열하루 길입니다. 다만 국경의 한쪽은 갈대 수풀이요,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강을 건너 기마군으로 승부하고자 하면 수만 군졸이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먼저 깬 뒤에야 군사를 내는 게 좋을까 하나이다.”

장수들의 의논을 들은 호왕이 이를 옳게 여겨 용골대 장군을 선봉장으로 삼고 지시했다.

“너는 수만 명 군사를 거느려 배를 띄워라.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업도 사로잡지 않겠느냐?” 용골대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뽑아 훈련을 시작했다.

(중략)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어 강화도로 침입했는데, 강화 유수 김경정은 술만 마시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호국군에 꿈쩍없이 당했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잡은 용골대는 송파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으름장을 부렸다.

이때 임금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서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 오듯 흘릴 뿐이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 밖에 남기고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량미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B] 나고 여름 보리를 지어 먹고 있을 테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어서 빨리 나와 항복하여라.”

용골대가 산봉우리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임금이 대신들과 항복할 것을 의논하니,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마마!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항복하시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며, 사직을 보전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 신하가 앞에 나와 말했다. “옛말에 일렸으되,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될 수 없다 했사오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 이까?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오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이 옅니다. 그러면 대왕마마께서는 자연히 욕을 면할 것입니다.” “경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 길이 막혀 사람들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 지금 사정이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입을 다물라.”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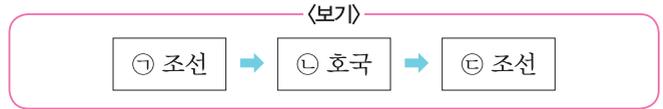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고전 소설 독해 공식

- ① 중심인물: ()
- 배경: ()
- ② 중심 사건: ()
- 갈등: ()
- ③ 서술상 특징: ()

E05 *** 2018 실시 6월 학평 21(고2)

윗글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임경업은 호국 장수들이 아군을 염탐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다.
- ② ㉠에서 임경업과 달리 조정의 신하들은 호국이 다시 침범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
- ③ ㉡에서 호국 왕은 임경업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해 한양을 급습하는 계교를 꾸민다.
- ④ ㉢에서 신하들은 호국의 침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임경업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⑤ ㉢에서 임경업이 남한산성의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금은 항복할 것을 결심한다.

E06 *** 2018 실시 6월 학평 22(고2)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유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행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E07 *** 2018 실시 6월 학평 23(고2)

㉔의 상황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 ③ 오월동주(吳越同舟)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E08 ★ 1등급 대비 2018 실시 6월 학평 24(고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임경업은 인조 때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장수로서 의주에 주둔하며 청의 주요한 공격로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했던 조정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임경업전〉은 이러한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 ① 의주 부윤 임경업의 활약은 실존 인물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로군.
- ② 단숨에 호국 진영을 제압하는 임경업의 모습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려 하였군.
- ③ 임경업이 용골대의 침략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민중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겠군.
- ④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을 호국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인물로 형상화하여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조선과 호국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 데는 명분만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군.

[비상(한), 신사고, 지학사, 천재(정) 연계]

[E0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한 시간 5분

[앞부분의 줄거리] 불도 수행자 성진은 여덟 선녀를 희롱한 죄로 육관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양생이 과거가 닳았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 또 두련사를 찾아보니 두련사가 말하되,

“한 처자가 있으니 재모를 의논하면 분명 양랑의 짝이로되 다만 가문이 너무 높아 공후의 벼슬을 여섯 대에 걸쳐 지냈고 대대로 정승을 한 집안이라. 양랑이 만일 신방 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려니와 그 전에는 부질없으니 구태여 노신을 자주 찾아와 보지 말고 과거에 힘쓸지어다.”

양생이 왈,

“어떤 집 여자니이까?”

두련사가 왈,

“춘명문 안에 사는 정 사도 집이니 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아 있고 위에 계극을 배설한 집이라.”

양생이 심중에 섬월이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하고 묻기를,

“정 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이 보신 적이 있으시이까?”

두련사가 왈,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오. 정 소저는 하늘 사람이니 어찌 언어로 형용하리오?”

양생이 왈,

“소자 감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평생 바 [A] 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소서.”

두련사가 크게 웃고 이르되,

“재사가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오. 양랑이 노신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은가 의심하느냐?”

양생이 왈,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리이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와 같겠사옵니까?”

두련사가 왈,

“그렇지 않다. 봉황과 기린은 사람마다 상서로운 줄 알고 청천백일은 사람마다 그 청명함을 우러러보나니 만일 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자도가 고운 줄을 모르리오?”

21 DAY



[E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한 시간 5분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이익의 아들 대봉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장차 혼인을 약속한다. 이후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술을 익혀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하고, 애황은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여 살아가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선우의 군대를 격퇴한다. 다시 만난 대봉과 애황은 결혼하고, 공을 인정받아 초왕과 총렬왕후가 되지만 흉노의 대군과 선우의 군대가 재침입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어찌 하리오?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도다. 전 일에 애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규중에 들어갔으니 한 쪽에는 대봉을 보내면 되겠지만 또 한쪽에는 누구로 하여금 막게 하리오? 짐이 덕이 없어 도적이 자주 일어나니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하니 과도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즉시 초왕만 패초*하옵시면 왕후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인재이니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즉시 패초하니 초왕이 전교를 보고 크게 놀랐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초왕이 즉시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월각 투구를 쓰고 용인갑을 입고 청룡도를 비스듬히 들고 오추마를 채찍질하여 그날 바로 황성에 도착하였다. 초왕이 계단 아래에 나아가 땅에 엎드리니, 황제가 초왕의 손을 잡고 양쪽에 장수를 다 보낼 수 없는 국가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초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남북의 강병이 억만이라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마소서.”

즉시 사자를 명하여 총렬왕후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가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화려한 옷을 벗고 갑주를 갖추어 입고 천사검을 들고 천리준총마를 타고 태상 태후 및 두 공주와 후궁에게 하직한 뒤,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달려왔다. 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성 밖에까지 나와 맞이 하거늘 왕후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아뢰었다.

“폐하의 은덕이 오직 우리 초왕 부부에게 미쳤사운데, 불행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에 군병을 조발*하여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총독 상장군에 봉하고 인끈과 절월을 주며 군중에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즉시 참수하라 하였다. 또 초왕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군사를 조발할 때 장 원수는 황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이 원수는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씩 거느리고 행군하여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 가고 애황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났다.

이때 애황은 잉태한 지 일곱 달이었다.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봉이 애황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원수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니, 복중에 품은 혈육 보전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오? ㉠부디 몸을 안보하소서.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

이렇게 애뜻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애황이 다시 말하였다.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덜고 태후의 근심을 덜게 하소서.”

말 위에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이별한 뒤, 대봉은 북으로 향하고 애황은 남으로 향하여 행군하였다.

(중략)

원수가 백금 투구를 쓰고 흑운포를 입고 7척 천사검을 높이 들고 천리준총마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들 때, 남주작과 북현무, 청룡과 백호군에게 호령하여 적진의 후군을 습격하여 무찌르게 하고 자신은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웠다. 싸운 지 반합이 채 못 되어 원수의 같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어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누비니, 오늘의 용맹이 전날의 용맹에 비해 배나 더하였다. 삼십여 합을 겨룬 끝에 무수히 많은 장수를 무찌르고 선우의 팔십만 대병을 몰아치니,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아나려 하였다. 이를 보고 장 원수가 적군을 여린 풀 베듯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적진 장졸들이 원수의 용맹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지자, 선우가 이를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장 원수가 지르는 한 마디 고성 속에 김광이 번쩍하더니 선우의 몸이 뒤집히면서 말 아래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에 장 원수가 선우의 목을 베어 함에 넣어 남만의 다섯 나라에 보내었다. 그리고는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고 백성을 진무*하였다.

이때 다섯 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는 황금과 비단, 채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항복의 문서를 올리며 죽여 달라고 사죄하였다. 장 원수가 다섯 나라의 왕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죄를 낱알이 밝힌 뒤 항서와 예단을 받았다. 이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 뒤로 만일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다섯 나라의 인 [B] 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또 물러나 동지(冬至)에 조공 보냄을 지체하지 말라.”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하며 선우를 닦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장 원수가 군사를 수습하여 진문관에서 군사를 위로하며 쉬게 한 뒤, 예단을 싣고 차차 나아가 황성으로 올라왔다.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하여 영채(營寨)를 세우고 쉬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더니 혼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활달한 기남자였다. 3일 몸조리한 뒤 말을 타지 못하여 수레를 타고 행군하였다.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패초: 조선 시대에 임금의 신하를 부르던 일
- * 조발: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 * 진무: 안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랠.

★ 고전 소설 독해 공식

- ① 중심인물: ()
배경: ()
- ② 중심 사건: ()
갈등: ()
- ③ 서술상 특징: ()

E24 *** 2020 실시 6월 학평 31(고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초월적 공간을 통해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E25 ★ 1등급 대비 2020 실시 6월 학평 32(고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A]에서 시작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A]에서 촉발된 인물들 간의 오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DAY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대봉전〉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특징적이다.

- ①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폐초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장애황이 규중을 벗어나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장애황이 잉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장애황과 이대봉이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우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을 보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대봉은 애황에게 ()하고 있군.

- ① 경거망동(輕舉妄動) ② 신신당부(申申當付)
- ③ 애걸복걸(哀乞伏乞)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러 온 오랜 친구인 이혈룡을 박대하며 죽이려 한다.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거처 차림으로 옥단춘을 만나고 김진희의 잔치 자리에도 나타난다.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혈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 감사도 등골이 섬뜩하여 좌우 비장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랴 하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습니다.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가 문초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령하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어르기를,

“야단났다,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 놈들 야단났다.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연광정 밑으로 가니,

“사공 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에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불어 대면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그보다 귀신 아닌 자기의 서방님 이생원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이 벌벌 떨렸으니, 김 감사는 불러서 형구를 차려 놓고,

“그놈을 능지가 되도록 때려서 문초하라.”

추상같은 엄명을 내리매, 형방조차 겁을 내고 뺏사공들을 치면서 얼러 대기,

[A] “이놈들 들어 보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사공들은 악착같은 악형에 못 이기고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말았으니, 김 감사는 다른 형방에게,

D

어휘 + 개념어 TEST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20]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발발하다 공허하다 직시하다 추이 부대끼다
 삼시간 을씨년스럽다 금지 이연하다 정체성
 대동하다 객지 대변하다 연상하다 파국
 비하하다 평정 색출 개키다 조명하다

- 01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다. ()
- 02 매우 짧은 시간 ()
- 03 살살이 뒤져서 찾아냄. ()
- 04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
- 05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판이 남. 또는 그 판국 ()
- 06 사람이나 일에 시달려 크게 괴로움을 겪다. ()
- 07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
- 08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
- 09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난다. ()
- 10 평안하고 고요함. 또는 그런 상태 ()
- 11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
- 12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다. ()
- 13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
- 14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다. ()
- 15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하는 상태이다. ()
- 16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하다. ()
- 17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다. ()
- 18 업신여겨 낮추다. ()

- 19 보기에 날씨가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
- 20 일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 ()

* 헛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21-40]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21 땅이 겹고 기름지다. (비옥하다, 비대하다)
- 22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개시되다, 개통되다)
- 23 휩쓸어 죄다 없애 버림. (중탕, 소탕)
- 24 차분하고 평온하다. (담담하다, 섭섭하다)
- 25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폐기, 폐단)
- 26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하다. (범접하다, 범상하다)
- 27 속에 품고 있는 참뜻. 또는 진짜 의도 (의의, 진의)
- 28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책 (상책, 술책)
- 29 관련이 있는 상황이나 사실 따위가 서로 이어지다. (관철되다, 점철되다)
- 30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학술, 학대)
- 31 스스로 인정하다. (자인하다, 자수하다)
- 32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가열하다, 가담하다)
- 33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멸시, 소멸)
- 34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 (판단하다, 판이하다)
- 35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관행, 관심)
- 36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치게 되다. (교차되다, 교환되다)
- 37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다. (유도하다, 시도하다)
- 38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채비, 채무)

- 39 어떤 큰 현상이나 사업 따위를 이루다.
(이룩하다, 거룩하다)
- 40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두다. (보완하다, 보류하다)

*** 문맥에 맞는 어휘 활용하기**

[41-5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문맥에 맞게 쓰시오.

<보기>

빈번하다 지레 우발적 각별하다 압도되다
요긴하다 소멸되다 반감 쇠진하다 파견
상흔 방관하다 즐비하다 결렬되다 외해되다

- 41 예전엔 논밭이 가득하던 곳에 지금은 건물이 ()하게 들어섰다.
- 42 내 무릎에는 ()이/가 아직도 남아 있다.
- 43 이 물건은 옮길 때 ()한 주의가 필요하다.
- 44 적을 마주한 순간 기세에 ()되어 이미 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 45 이 집계는 고기를 구울 때 아주 ()하다.
- 46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강요하는 것은 ()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 47 지금의 문제 상황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 48 그는 ()인 싸움에 휘말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 49 천둥소리가 나기도 전에 () 겁을 먹고 귀를 막고 있었다.
- 50 이번에 새로 산 선풍기는 고장이 ()하여 환불을 받았다.
- 51 기력이 ()하여 쉽게 피로하다.
- 52 전통적 가치들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 53 신분 질서가 ()되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 54 노사 협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55 집에서 먼 지역으로 () 근무를 나온 지 벌써 일 년이 되었다.

***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 56 <보기>의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근 소설에서는 공상과학물(SF)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은 공상과학물에 자주 등장하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맹렬한 ② 빈약한 ③ 외람된
④ 필수적인 ⑤ 자기희생적인

*** 개념어 이해하기**

[57-58] 서로 관련되는 <보기>의 용어와 예시를 연결하십시오.

<보기>

- ㄱ. 의식의 흐름: 서술자의 의식에 떠오르는 그대로 이야기를 서술
ㄴ. 우의: 은연중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부정적 대상을 풍자(우의)

57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계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 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 쿼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다.

()

58 성적도 — 석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 주는 게 내게 유리할 수도 있었다. 1등을 넘보지 않는 한 2등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내 차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정답]

- 01 대변하다 02 삼시간 03 색출 04 정체성 05 파국 06 부대끼다 07 객지 08 개키다 09 발발하다 10 평정 11 공허하다 12 연상하다 13 궁지 14 조명하다
15 아연하다 16 대동하다 17 직시하다 18 비하하다 19 을씨년스럽다 20 추이 21 비옥하다 22 개통되다 23 소탕 24 담당하다 25 폐단 26 범접하다 27 진의 28 상책
29 점철되다 30 학대 31 자인하다 32 가담하다 33 멸시 34 판이하다 35 관행 36 교차되다 37 시도하다 38 채비 39 이룩하다 40 보류하다 41 즐비 42 상흔 43 각별
44 압도 45 요긴 46 반감 47 방관 48 우발적 49 지레 50 빈번 51 쇠진 52 소멸 53 외해 54 결렬 55 파견 56 ㉠ 57 ㄱ(의식의 흐름) 58 ㄴ(우의)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표시하세요.

7

- ◻ **가관** [可 觀을 가 觀 불 관]

꼴이 불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
- ◻ **가담** [加 더할 가 擔 댄 담]하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예) 적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 ◻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 **가정**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
- ◻ **각별** [各 각각 각 別 다를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각인** [刻 새길 각 印 도장 인]되다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
- ◻ **간간** [間 사이 간 間 사이 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 ◻ **간신** [艱 어려운 간 辛 매울 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 ◻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초로(草叢)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
- 허난설헌, <규원가>
- ◻ **갈기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때리거나 치다.
- ◻ **감내** [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 ◻ **감복** [感 느낄 감 服 입을 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 ◻ **감흥** [感 느낄 감 興 일어날 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 ◻ **강조** [強 강할 강 調 고를 조]하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 ◻ **강행**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 ◻ **강호** [江 강 강 湖 호수 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 ◻ **강화** [強 강할 강 化 될 화]하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

- ◻ **개입** [介 끼일 개 入 들 입]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
- ◻ **개진** [開 열 개 陳 늘어놓을 진]하다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예) 발표자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 ◻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예) 자고 일어난 자리의 이불을 잘 **개켜서** 치워 두었다.
- ◻ **개통** [開 열 개 通 통할 통]되다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 ◻ **객관적** [客 손님 객 觀 불 관의 관념 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 ◻ **객지** [客 손님 객 地 땅 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 ◻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정도가 어지간하다.
- ◻ **거동**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 ◻ **거북하다**

몸이 쭉뚝드드하고 괴로워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
- ◻ **거사** [擧 들 거 事 일 사]

큰일을 일으킴.
- ◻ **거처** [去 갈 거 處 곳 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 ◻ **거처** [居 살 거 處 곳 처]하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 ◻ **검거**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되다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 ◻ **격동** [激 과격할 격 動 움직일 동]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 ◻ **견해** [見 볼 견 解 풀 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두 사람의 **견해** 차이로 회의가 길어졌다.
- ◻ **결렬** [決 결정할 결 裂 찢을 렬]되다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되다.
예)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결박** [結 맺을 결 縛 묶을 박]하다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다.
- ◻ **결백** [潔 깨끗할 결 白 흰 백]하다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

- ◻ **결의** [決 결정할 결 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 ◻ **결핍** [缺 이지러질 결 乏 가난할 핍]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람.
예) 그는 식사를 걸러 영양 **결핍**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 ◻ **겸비** [兼 겸할 겸 備 갖추 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 ◻ **경계**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 ◻ **경과**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시간이 지나감.
- ◻ **경물** [景 경치 경 物 만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 ◻ **경의** [敬 공경할 경 畏 두려워할 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 **경작**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하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 ◻ **경합** [競 다룰 경 爭 합할 합]

서로 맞서 겨룸.
- ◻ **경향** [傾 기울 경 向 방향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 **계기** [契 맺을 계 機 틀 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 ◻ **계책** [計 꾀할 계 策 꾀 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 ◻ **고결** [高 높을 고 潔 깨끗할 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 ◻ **고고** [孤 외로울 고 高 높을 고]하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 ◻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 ◻ **고봉** [高 높을 고 峯 봉우리 봉]

높은 산봉우리
- ◻ **고수** [固 굳을 고 守 지킬 수]하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
예) 그는 10년째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한다.
- ◻ **고심** [苦 괴로울 고 心 마음 심]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 ◻ **고이다**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 ◻ **고조** [高 높을 고 調 고를 조]되다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다.

 차 례

A 현대시	2
내신 대비 기출문제	4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11
B 고전 시가	49
내신 대비 기출문제	51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62
C 시 복합, 수필	79
내신 대비 기출문제	82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107
D 현대 소설	166
내신 대비 기출문제	168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174
E 고전 소설	253
내신 대비 기출문제	257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273
F 극 문학, 소설 복합	338
학평 + 수능 대비 기출문제	340



E 고전 소설

E 01~04

2023 실시 3월 학평 39~42(고2)

* 김시습, <이생규장전>

출제 ① 중심인물, 배경 ② 중심 사건, 갈등 ③ 서술상 특징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①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② 옛 성인의 말씀에 '아버지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③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 주었다.

*① 요약: 이생이 자식된 도리를 근거로 들며 집으로 돌아감.

② 이생은 그 뒤부터 ①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③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④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⑤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⑥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①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인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의
경박하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② 요약: 이생 부친이 밤마다 최씨와 만난 이생을 고향으로 쫓아버림.

③ 최씨는 ⑦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⑧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 집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⑨ "이 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⑩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③ 요약: 최씨는 이생을 그리워하다 병이 남.

④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⑥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 "이생이 누구냐?"
 ⑦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부모가 이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⑧ "아버님, 어머니님. 길러 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최씨의 모습이 나타남.]
 ⑨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 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뿔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서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 서 살듯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원나라 때 왕 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이야기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신의 없는 도련님이 한 번 가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 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러

다녀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 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 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 차 한 멧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 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곤박한 청을 거절하

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 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⑩ 이에 최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 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 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는 [중매의 예를 갖

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 []: 최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이생의 집으로 중매쟁이를 보낸 화답하다: 시(詩)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하다.
 정리: 인정과 도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요약: 최씨가 부모에게 이생과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세움.

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묻은 후 말하였다.

⑥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⑦ 갈등: 혼인을 둘러싼 이생 부친과 최씨 부친의 외적 갈등
 ⑧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⑨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 맥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6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1: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이 최씨 가문에 비해 가난하고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함.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먹을 속인 것일 겁니다.]

7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고하자 최씨 부친이 말하였다.

8 "납채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10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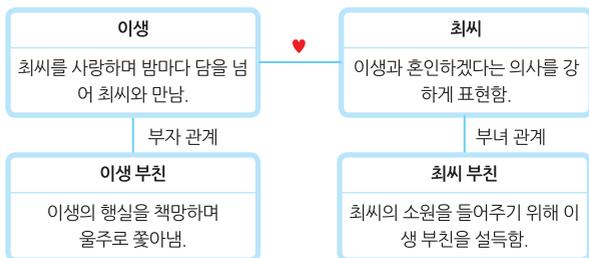
이생은 최씨와의 혼인에 크게 기뻐함.
풍모: 풍채(風采)와 용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귀택: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방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납채: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 [5] 요약: 최씨 부친의 노력으로 이생과 최씨가 혼인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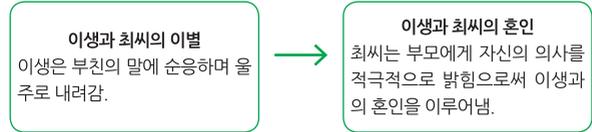
■ 독해 공식 정답

- 1 중심인물: 이생, 최씨, 이생 부친, 최씨 부친
 공간적 배경: 최씨 집(화원), 이생 집
- 2 중심 사건: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울주로 쫓아냄. 최씨가 이생과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세움. 최씨 부친이 이생 부친을 설득하여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성사시킴.
 갈등: 혼인을 둘러싼 이생 부친과 최씨 부친의 외적 갈등
- 3 서술상 특징
 - 서술자: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 인물이 옛 성인의 말, 문헌,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인물의 태도 및 사건의 상황을 강조함.
 -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물이 전한 말을 통해 전개됨.

-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 글쓴이: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조선 전기의 학자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하였다.
- 제목의 의미: '오얏 이(李)+ 날 생(生)+옛불 규(窺)+담 장(牆)+전할 전(傳)',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라는 뜻으로, 이생이 담장 안의 최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이 작품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점,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통해 혼인이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 주제: 이생과 최씨의 사랑
- 인물 관계도



■ 이것이 핵심!: 사랑을 쟁취하려는 최씨의 적극적인 의지



■ 전체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李生)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인 최랑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시를 주고받고, 이생이 밤마다 담을 넘어 최랑과 만남을 갖는다. 그러나 이생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생 부친이 이생을 고향인 울주로 쫓아버리고, 최랑은 이생과 만나지 못해 병에 걸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는 이생 부모를 설득하여 이생과 최랑을 혼인시킨다. 그 후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키다가 끝내 흉건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난이 평정된 후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황폐화된 집에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픔에 잠긴다. 그러던 중, 죽은 아내의 환신이 돌아오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린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최랑은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장사 지내 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 주고, 곧 병이 들어 죽는다. ([5]: 지문 수록 부분)

E 01 정답 ③ *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정답률 6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해 정답 ?

③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다.

5-5, 6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나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

이생 부친은 중매쟁이를 통해 최씨 가문에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냐고 묻고 있는데, '한미한 선비'란 자신의 아들인 이생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은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최씨 가문에 비해 자신의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오해 오답 ?

① 이생은 집안에서 최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5-8-11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씨 집안에서는 ~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② 향아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린다.

3-8-6 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다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④ 최씨는 이생과의 만남을 부모에게 숨기다가 끝내 사실대로 고백한다.

4-1-8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이생이 누구냐?" /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⑤ 최씨 부친은 최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중매쟁이를 이생 집에 보낸다.

4-18-20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최씨의 부모도 ~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E 02 정답 ④ *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률 7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해 정답 ?

④ ㉣은 최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씨의 최씨가 초췌해진 것은 ㉣ 이후의 일임.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일어나지 않음.

③-①, ⑧ 최씨는 ㉣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은 최씨가 이생을 기다린 시간이 저녁이며, 이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씨가 초췌해진 것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이다. ㉣에서 최씨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해 오답 ?

① ㉠은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한편,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이생을 영남으로 쫓아냄.

②-①-⑩ 이생은 그 뒤부터 ㉠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

㉠은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밤마다 반복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생 부친이 이생이 밤마다 밖에 나가 새벽에야 돌아오는 행실을 문제 삼아 이생을 영남으로 쫓아내고 있으므로, 이는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② ㉡은 이생이 집에 돌아오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이생이 부친의 뜻 아침에 집을 나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저녁에 돌아오는 것 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③-④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은 이생이 최씨와 만난 후 집에 돌아오는 시점이 새벽임을 의미한다. 이생 부친은 이생이 아침에 집을 나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저녁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생이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은 이생 부친의 단호함을 함축하는 한편, 이생과 최씨가 새로운 이별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②-⑨-⑩ 너는 ㉢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나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생의 잘못에 대한 이생 부친의 단호한 처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으로 이생과 최씨가 '이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생이 지금 당장 영남으로 떠나면 더 이상 최씨와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은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드러내면서, 최씨가 느끼는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다.** 최씨가 이생을 간절히 그리워함.

③-①-⑧ 최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은 최씨가 꽤 오랫동안 이생을 기다렸으며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몇 달 동안이나 이생을 기다리면서 최씨가 느꼈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다.

E 03 정답 ② *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4% ② 40% ③ 32% ④ 11% 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해 틀렸나?

최씨 부친은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어찌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최씨 부친의 말이 비유적 표현이다 보니,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오해 정답 ?

② [A]와 [B]는 모두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이생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⑤-② [A]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⑤-④ [B] "한 시대의 벼들이 모두 그 맥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는 이생이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세상을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서둘러 시킬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B]도 이생이 연못 속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속히 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이생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각자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오해 오답 ?

① [A]와 [B]는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언급하지 않음. 회유하고 있다.

[A]는 이생이 잠시 바람이 났었다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를 회유하고 있지 않다.

[B]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언급할 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A]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B]는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요구하지 않음.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A]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B]는 서둘러 혼인을 시킬 의사가 없다는 상대에게 속히 좋은 날을 정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매력 오답

[A]에서 이생 부친은 현재 이생을 혼사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혼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④ [A]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B]는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A]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서둘러 시킬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B]는 이생과 최씨의 혼인을 속히 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B]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B]는 **장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A]는 이생에 대한 이생 부친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이생에 대한 평판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을 뿐, 상대에게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B]는 이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이생과 최씨의 혼인이라는 제안에 응할 것을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생은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담장을 넘어 돌아가려 한다. <보기>에 따르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는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것으로, 이생이 최씨와 머무르며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는 이생 부친은,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옹호하지 않는 인물 **라고 할 수 있겠군.**

②-⑤, ⑥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보기> ②문장 이들의 사랑은 ~ 주변 인물 ~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이생 부친은 최씨 집 담장을 넘어 정을 통하는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옹호하지 않는 이생 부친은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생의 모습과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씨의 모습은, **규범적 질서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자신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함.

②-⑨, ⑩ “~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④-① “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생은 영남으로 떠나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씨도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의 물음에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생과 최씨는 각각의 부모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최씨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며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둘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을 인정 받으려 함. **볼 수 있겠군.**

④-⑩, ⑪ 부모님께서 저의 ~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보기> ③문장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최씨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둘의 사랑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 즉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 내로 자신들의 사랑을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력 오답 '혼인'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므로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이생과 최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사랑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최씨가 혼인을 하려는 목적은 자신들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 내로 진입시키려는 것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E 04 정답 ④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1등급 대비**
① 5% ② 5% ③ 14% ④ 59% 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제적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1. 이생이 담장을 넘어 최씨를 만남으로써 담장의 제약을 극복함.]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②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이생 부친 성인의 말씀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③ 이들은 담장의 제약에 일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혼인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으려 함. 상황을 타개한다.

단서+해결
[단서]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① 물리적 담장 ② 규범적 담장
[발상] 이생은 물리적 담장을 넘고, 최씨는 규범적 담장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해결] 최씨가 혼인을 주장하는 것이 규범적 담장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해 정답 ?
④ 최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하며 '혼기'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한 것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 최씨는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 사랑을 유지하려 함. **했기 때문이겠군.**

④-⑩-⑪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
<보기> ②-③문장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최씨가 '혼기'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하며, 이생과의 혼인을 주장한다. 이는 규범적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해 오답 ?
① 이생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언급하며 다시 '담을 넘어 돌아가'는 것은, **최씨와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겠군.**

①-② “옛 성인의 말씀에 ‘아버지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 부모님께서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보기> ②문장 이들의 사랑은 ~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